

한글 맞춤법 개정 시안

# I. 경위 및 개요

## 1. 개정의 필요성

1933년, 조선어 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한 이래 몇 차례의 부분적 개정은 있었으나, 약 40년간 써 내려오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첫째, 규정은 있으나 실용상 그대로 준수되지 않는 조항이 생기게 되었다. 가령, '띄어쓰기'나 '준중'의 표기 규정은 문법 이론에 맞는 규정이었으나, 실용에 어렵거나 번거롭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좀 쉽게 해야 한다는 뜻있는 사람들의 여론도 없지 않았다.

둘째, 규정의 미비 때문에 표기법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두음 법칙의 세부 규정 미비, 접미 파생어 또는 복합어의 표기법 세부 규정 미비, 어미 '오'에 관한 규정의 미비 등이 그 예이다.

셋째, 형태주의 표기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어휘들이 있어 이들에 대한 규정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넷째,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현재에 이르러서는 전혀 불필요한 조문이 생겨 이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모음 간의 설측음 표기 규정 따위는 이미 상식화되어 있는 것이며, 모음 'ㅇ'를 'ㅏ'로 적어야 한다는 규정도 이제는 불필요한 규정이 된 것이다.

다섯째, 국어의 발달로 말미암아 일부 표준어를 현실에 맞게 재사정해야 했고, 따라서 맞춤법에서도 그 예를 삭제, 보완해야 하게 되었다.

## 2. 현행 표기법의 연혁 및 문제점

### (1) 연 력

- 1933년 10월, 조선어 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 1940년 6월, 1964년 9월, 일부 개정
- 1968년 10월, 대통령 각하, 알기 쉬운 표기 방법 연구 지시
- 1970년 2월, 국어 심의회에서 한글 맞춤법 연구 기본 계획 수립
- 1970년 4월, 국어 심의회는 국어 조사 연구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본 업무를 위촉(한글학회 주축, 각 어문 단체 망라)
- 1972년 8월, 국어 조사 연구 위원회, 개정 한글 맞춤법안 작성
- 1972년 11월, 국어 조사 연구 위원회 한글 맞춤법 재심 위원회, 수정안 작성
- 1972년 12월, 맞춤법 개정 초안 접수
- 1972년 12월~1973년 6월, 국어 심의회 한글 분과에서 동 개정안을 심의

## (2) 문제점

비현실적인 규정이 있어 실용상 준수되지 않는 조항이 있음

띄어쓰기—먹어 보다, 하는 바이다.

준중 표기—연구용기로 등

형태주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어휘가 있음

떠러지다→떨어지다

너머지다→넘어지다 등

현재에 와서는 불필요한 조항이 있음

- 한 형태소 안에서 모음 간의 설측음 표기 규정
- 한자음 모음의 ‘ㄱ→기, ㅇ→야’ 등에 대한 규정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 접미사처럼 쓰이는 ‘을(畢)’이나 그 밖에 ‘열(列)’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서 자주 혼동을 일으킴.
- 어미 ‘오’와 조사 ‘요’의 규정이 불명확하여 혼동의 요인이 되고 있음.

‘하시오’, ‘하시요’의 혼동

파생어나 복합어에서 뒤에 오는 말의 두음 법칙에 대한 규정이 없음

‘남존여비(男尊女卑)’, ‘남존녀비’ 등의 혼동

표준어 재사정으로 인한 맞춤법 개정이 불가피함

올다→올프다

말[昆]→마지

넙따랄다→넙다랄다

## 3. 개정 시안 작성 과정

당부에서는 이번 국어 어문 정책 관계 사업의 일환으로 맞춤법 개정안을 다시 재심에 붙이게 되어 1978년 5월에 한글 맞춤법 개정안 재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상 표준어 재사정을 하는 동안 1978년 5월~8월에 국어 심의회 상임 전문 위원 이 그 내용을 우선 검토하여 문제점을 추출하여 심의 자료를 작성하고, 1978년 10월~11월에 이를 국어 심의회 한글 본과 회의에 붙여 심의를 완료, 본문 5장 47항, 부록 9항을 확정하였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기까지의 추진 일정, 방법 및 심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 (1) 추진 일정

1978년 5월 1일, 한글 맞춤법 개정안 재심 기본 계획 수립

1978년 5~8월, 국어 심의회 상임 전문 위원 개정안 내용 검토

1978년 10~11월, 국어 심의회 한글 본과 심의

· 본회의 : 12회

· 소위원회 : 18회

### (2) 심의 방법

소위원회—본회의에서 심의하지 않은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여 선후 모순되는 점, 또는 보

완해야 할 점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그 개정 방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 상정함을 주임 무로 하고, 또 본회의에서 거론된 문제점에 대한 조사, 연구 지시에 따라 회의 자료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냄.

본회의—소위원회에서 낸 검토안을 중심으로 심의하고 다시 개정안 전문을 축조 심의함.

### (3) 심의 위원 명단

위원장	허웅(서울대학교 교수)
위원	장하일(전 국어 조사 연구 위원회 주간)
위원	이응백(서울대학교 교수)
위원	이기문(서울대학교 교수)
위원	최학근(서울대학교 교수)
위원	김민수(고려대학교 교수)
위원	강윤호(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위원	이혜숙(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위원	홍웅선(연세대학교 교수)
위원	김석득(연세대학교 교수)
위원	진규태(연세대학교 교수)
위원	김성배(동국대학교 교수)
위원	이병호(한국교육개발원 책임 연구원)
위원	정재도(소년조선주간)
위원	박용규(서울신문 교열부장)
전문위원	지순수, 박영목, 서원일

## 4. 개정 시안의 특징 및 개요

### (1) 특 징

- ① 현행 맞춤법 통일안의 기본 정신을 근간으로 하였음.
- ② 표준말 재사정과 함께 시대성을 반영하였음.
- ③ 기본 형태를 분석할 수 없는 것들은 소리대로 적기로 하였음.

갑작갑작→각각각각

넘어지다→너머지다

- ④ 대중의 표기 경향을 일부 반영하여, 규정은 있으나 준수되지 않고 있는 표준어를 현실에 맞게 고치었음.

준중의 표기 등

- ⑤ 띄어쓰기 규정을 보강하여 실용에 편하게 하였음.

### (2) 개 요

- ① 전체 체재를 조정함

7장 63항→본문 5장 47항 부록 9항

- ② 형태주의적 표기 방식을 기본 바탕으로 함

③ 실용상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가) 이문적 근거가 희박한 ㄷ 받침을 ㅅ 받침으로 고침.

반길고리 → 반깃고리

선달 → 섯달

숯가락 → 솯가락

(나) 기본 형태를 밝히기가 어려운 것까지도 분석적으로 적던 것을 소리대로 적기로 함.

넘어지다 → 너머지다

늘어뜨리다 → 느러뜨리다

떨어지다 → 떠러지다

쇠불이 → 쇠부치

갑작갑작 → 각작각작

(다) 띄어쓰기를 쉽게 함.

불완전 명사, 명수사, 보조 용언 등 일반 대중의 단어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것들은 붙여 쓰기로 하고, 고유 명사, 전문 용어, 성명 등도 붙여 쓰기로 함.

④ 시대성을 반영하였음

그 동안 우리말이 더러 변화하여 표준어 사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맞춤법도 부분적으로 이에 맞추었음.

말[尾] → 마지

넉따랄다 → 넓다랄다

을다 → 을크다

그 밖에, '복도두다'를 '우' 번칙 활용어로 하는 따위

⑤ 불필요한 규정의 정비

(가) 한 낱말 안의 두 홑소리(모음) 사이에서 나는 설측음을 ㄹ로 적는 규정

빨내 → 빨래

걸네 → 걸레

빨니 → 빨리

(나) 접미사 '-알(얼)다', '-업(읍)다'가 붙어서 된 말에 있어서 그 접미사의 기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기로 한 규정

놀알다 → 노랄다

목업다 → 무겁다

(다) 한자음의 '·'로 달린 자음을 'ㅏ'로 적기로 한 규정

간친 → 간친

자녀 → 자녀

아동 → 아동

(라) 'ㄹ, ㅂ, ㅍ'를 첫소리로 한 'ㅡ'를 'ㅏ'로 적기로 한 규정

묵화 → 묵화(墨畫)

북방 → 북방(北方)

⑥ 대중의 표기 경향의 긍정적 반영

(가) 준중 표기의 폐지

가하다, 가응다 → 가타

연구하기로, 연구흥기로 → 연구기로

(나) 한 낱말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같은 첫소리가 겹쳐 나는 부분을 같은 글자로 적기로 함.

딱딱 → 딱딱

쌈살하다 → 뺨쌈하다

똑딱똑딱 → 똑딱똑딱

(다) 사이시옷 표기의 허용 사항 규정

사이시옷을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뜻의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것은 표기하지 않음도 허용하였음.

구똥방 구두방

표깃법 표기법

국엇과 국어과

Ⅱ. 한글 맞춤법 개정 시안 (본문)

## 일 러 두 기

1. 이 한글 맞춤법 개정 시안 본문에 한하여 개정 시안의 규정에 좇아 표기하였다.
2. 열람의 편의를 위하여 현행(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달라진 항이나 없던 항을 각주(脚註) 형식으로 표시하여 참고하게 하였다.

## 차 례

제1장 총 칙 .....	17
제2장 낱자(자모) .....	17
제3장 소리에 관한것 .....	17
제1절 된소리 .....	17
제2절 구개음화 .....	18
제3절 'ㄷ' 소리 받침 .....	18
제4절 홑소리(모음) .....	19
제5절 한자말의 두음법칙 .....	19
제6절 겹쳐 나는 소리 .....	21
제4장 형태에 관한것 .....	22
제1절 체언과 조사 .....	22
제2절 어간과 어미 .....	22
제3절 어간과 어미 사이에 들어가는것 .....	24
제4절 불규칙용언 .....	26
제5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	27
제6절 복합어 및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 .....	31
제7절 준 말 .....	33
제5장 띄어쓰기 .....	38
제1절 조 사 .....	38
제2절 불완전명사 및 명수사 .....	38
제3절 보조용언 .....	40
제4절 고유명사 .....	40
제5절 전문용어 및 한 낱말처럼 된 말 .....	41
제6절 수 .....	42
부 록 .....	42

## 제1장 총 칙<sup>(1)</sup>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말 형태소의 기본 형태를 밝혀 적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문장의 각 낱말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제2장 낱자(자모)

제3항<sup>(2)</sup> 한글 낱자의 수는 스물네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 기역<sup>(3)</sup> ㄴ 니은 ㄷ 디운<sup>(4)</sup> ㄹ 리을 ㅁ 미음 ㅂ 비음 ㅅ 시읏<sup>(5)</sup> ㅇ 이음 ㅈ 지읏  
ㅊ 치읏 ㅋ 키읏 ㅌ 티읏 ㄷ 뒤읏 ㅈ 히읏  
ㅊ 아 ㅊ 야 ㄱ 어 ㄱ 여 ㄱ 오 ㅈ 오 ㅈ 우 ㅈ 유 ㅡ 으 ㅣ 이

(붙임) 두개 이상의 낱자를 어울려서 적는 글자는 그 순서와 이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 쌍기역 ㄷ 쌍디운 ㅂ 쌍비음 ㅅ 쌍시읏 ㅈ 쌍지읏  
ㅈ 애 ㅈ 애 ㅈ 애 ㅈ 애 나 와 내 왜 니 외 ㅈ 워 ㅈ 웨 ㅈ 워 ㅈ 의

## 제3장 소리에 관한것

### 제1절 된 소리

제4항<sup>(6)</sup> 한 형태소 안에서 나는 된소리는 아래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홀소리(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보기] 거꾸로 기쁘다 깨끗하다 부엌 소쩍새 수레<sup>(7)</sup> 아끼다 어찌 어찌하다 어찌  
여쭙다 오빠 으뜸 이따금 해쓱하다

2. 'ㄴ, ㄹ, ㅁ, ㅇ' 받침 다음에서 나는 된소리

[보기] 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뱃 음뿔 똥땅 엉뚱하다

다만, 'ㄱ, ㅂ' 받침 다음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같은 첫소리가 겹쳐 나는 소리가 아닌 한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보기] 국수 딱지 색시 업석 몹시 법석

(1) 현행 통일안의 '총론' :

1. 한글 맞춤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2.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의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3. 문장의 각 낱말(단어)은 띄어 쓰되, 토는 그 뒷말에 붙이어 쓴다.

(2) 개정 시안 제3항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1항, 제2항을 합친 것임.

(3) 현행 이름 : ㄱ 기역

(4) 현행 이름 : ㄷ 디운

(5) 현행 이름 : ㅅ 시읏

(6) 현행 통일안 : 제3항 한 낱말 안의 두 소리마디(음절) 사이에서 아무 뜻이 없이 나는 된소리는 아래 소리마디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예 :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7) 숫제(사전에 'ㅅ'을 받치었음.)

[통일안 제2절 띄어쓰기(설측음) 'ㄹ', 제4항 삭제]

제2절 구개음화

제5항<sup>(1)</sup> 'ㄷ, ㅌ' 받침 아래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경우에는 그 'ㄷ, ㅌ'이 'ㅅ, ㅈ'으로 소리나지만, 'ㄷ, ㅌ'으로 적는다.

[보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ㄱ	ㄴ
굳이	구지	활이다	활치다
땀받이	땀바지	걸히다	거치다
해돋이	해돋지	달히다	다치다
같이	가치	묻히다	무치다
밭이	바지		

제3절 ㄷ소리 받침

제6항 아무 뜻이 없이 'ㄷ' 소리로 나는 받침은 'ㅅ'으로 적는다.

[보기] 멧저고리 엿셈 웃어른 핫웃

웃 엿 찻 헛

무릇 사뭇 얼핏 걸꺾하면 자꺾하면 엿먹다 짓밟다

[붙임]<sup>(2)</sup> 종래에 'ㄷ, ㅌ' 받침으로 적던 다음과 같은 말들도 'ㅅ'으로 적는다.

[보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sup>(3)</sup>

ㄱ	ㄴ	ㄱ	ㄴ
맛달	말달	이뭇날	이뭇날
맛머느리	말머느리	갓주름	갈주름
반질고리	반질고리	꽃소	골소
사훈날	사훈날	갓다듬다	갈다듬다
삼질날	삼질날	갓다랠다	갈다랠다
섯달	설달	밭사든	밭사든
숫가락	술가락	밭상제	밭상제

(1) 통일안 제3절 입천장소리되기(구개음화) 제5항을 삭제하고, 제5항 [붙임 1]을 개정 시안 제5항 본문으로 함.

[통일안 제5항 [붙임 2] 'ㄴ, ㄹ'의 구개음화 인정 사항 삭제]

(2) '붙임' 신설

(3) 현행 표기 :

맛달	이뭇날
맛머느리	갈주름
반질고리	꽃소
사훈날	갈다듬다
삼질날	갈다랠다
섯달	밭사든
숫가락	밭상제

제4절 홀소리(모음)

제7항<sup>(1)</sup> '계, 례, 메, 례, 혜'는 종래와 같이 'ㄷ'로 적는다.

[보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ㄱ	ㄴ
계수(桂樹)	계수	혜택(惠澤)	혜택
사례(謝禮)	사례	계집	계집
연매(連袂)	연매	핑계	핑계
폐품(廢品)	폐품	계시다	계시다

다만<sup>(2)</sup>, 다음과 같은 말은 본음을 따라 'ㄱ'로 적는다.

휴게실(休憩室)      계시관(揭示板)      계승(繼承)

제8항<sup>(3)</sup> '의, 회, 뇌'의 'ㄴ'은 'ㄷ'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로 적는다.

[보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ㄱ	ㄴ
닐리리	닐리리	희렵다	히렵다
닐름	닐름	의원(醫院)	이원
하늬바람	하니바람	주의(注意)	주이
무늬	무니	희망(希望)	히망
희다	히다	유희(遊戲)	유히

제5절 한자말의 두음법칙

제9항 '녀, 뇨, 뉴, 니'가 낱말의 첫소리로 될 때에는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보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ㄱ	ㄴ
여자(女子)	녀자	유대(紐帶)	뉴대
영변(寧邊)	녕변	익명(匿名)	닉명
요소비료(要素肥料)	뇨소비료		

다만, 낱말의 첫소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보기] 남녀(男女)      부녀(婦女)      분뇨(糞尿)

또, 한자의 대표음은 본음으로 한다.

(1) 현행 통일안 : 제36항 '계, 례, 메, 례, 혜'는 본음대로 적고, '세, 제, 제'의 '에'는 '애'로 적는다.

[한자말에 관한 통일안 제33항('ㄷ'를 'ㄱ'로 적는 규정), 제34항('ㄴ'을 'ㄷ'로 적는 규정), 제35항('샤, 자, ...'를 '사, 자, ...'로 적는 규정), 제37항('스, 스, 오' 등 초성을 가진 한자음의 관음음 규정), 제38항('ㄹ, 비, 고' 등 초성을 가진 한자음의 원순모음화 인정 규정), 제40항('괴, 비, ...' 등을 '기, 비, ...'로 적는 규정), 제41항('위, 휘' 등을 '위, 휘'로 적는 규정) 등 삭제]

(2) '다만' 신설

(3) 현행 통일안 : 제39항 '의, 회'의 자음은 본음대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통일안 제3절 제45항(초성 ㄷ의 구개음화 규정), 제46항(초성 ㅌ의 구개음화 규정) 등 삭제]

**[보기]** 계집녀(女)

(붙임 1) <sup>(1)</sup> 복합어나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에서, 뒤에 오는 낱말이 'ㄴ' 소리가 나더라도 두 음 법칙을 따라 적는다.

**[보기]**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 영업연도(營業年度)

또, 둘 이상의 낱말을 묶어 단위별로 적는 고유명사도 위의 규정에 준하여 적는다.

**[보기]** 한국여자대학 한국요소비료회사

(붙임 2) <sup>(1)</sup> 순우리말에서 '나, 니' 등이 낱말의 첫소리로 될 때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보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남남하다	얹남하다
남남이	얹남이

제10항 '라, 리, 료, 류, 리, 레'가 낱말의 첫소리로 될 때에는 '야, 여, 요, 유, 이, 예'로 적는다.

**[보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ㄱ	ㄴ
양심(良心)	망심	유행(流行)	류해
역사(歷史)	력사	이발(理髮)	리발
요리(料理)	료리	예의(禮儀)	례의

다만, 낱말의 첫소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보기]** 개량(改良) 선량(善良) 수력(水力) 협력(協力)  
 재료(材料) 염료(染料) 하류(下流) 급류(急流)  
 도리(道理) 진리(眞理) 사례(謝禮) 혼례(婚禮)

또, 한자의 대표음은 본음으로 한다.

**[보기]** 어질량(良)

(붙임 1) <sup>(2)</sup> 홀소리나 'ㄴ' 받침 다음에 오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

**[보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ㄱ	ㄴ
나열(羅列)	나렬	분열(分裂)	분렬
대열(隊列)	대렬	선열(先烈)	선렬
비열(卑劣)	비렬	진열(陳列)	진렬
규율(規律)	규률	선율(旋律)	선률
비율(比率)	비률	운율(韻律)	운률
자율(自律)	자률	전율(戰慄)	전률

(붙임 2) <sup>(2)</sup> 복합어나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에서, 뒤에 오는 낱말이 'ㄴ' 또는 'ㄹ' 소리가 나더라도 두음법칙을 따라 적는다.

(1) '붙임 1', '붙임 2' 신설  
 (2) '붙임 1', '붙임 2' 신설

**[보기]** 역이용(逆利用) 연이율(年利率) 제육십장(第六十章) 열역학(熱力學)  
 원형이정(元亨利貞)

또, 둘 이상의 낱말을 묶어 단위별로 적는 고유명사나 만 단위로 띄어 쓰는 수도 위의 규정에 준하여 적는다.

**[보기]** 서울여관 강남이발관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

(붙임 3) <sup>(1)</sup> 독립된 명사로도 쓰이는 '양, 예, 영, 율' 등이 접미사처럼 쓰이는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보기]** 강우량(降雨量) 공급량(供給量) 생산량(生產量) 수출량(輸出量)  
 책임량(責任量)  
 판결례(判決例)  
 상견례(相見禮) 생남례(生男禮)  
 대관령(大關嶺) 추풍령(秋風嶺) 후치령(厚峙嶺)  
 대통령령(大統領令) 시행령(施行令)  
 경쟁률(競爭率) 취업률(就業率) 합격률(合格率)

다만 <sup>(2)</sup>, 홀소리 및 'ㄴ' 받침 다음에 오는 '률'은 (붙임 1)의 규정을 따른다.

제11항 '라, 로, 루, 르, 래, 뢰'가 낱말의 첫소리로 될 때에는 '나, 노, 누, 느, 내, 뢰'로 적는다.

**[보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ㄱ	ㄴ
낙원(樂園)	락원	능묘(陵墓)	릉묘
노인(老人)	로인	내일(來日)	래일
누각(樓閣)	루각	뇌성(雷聲)	뢰성

다만, 낱말의 첫소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보기]** 쾌락(快樂) 극락(極樂) 부로(父老) 연로(年老)  
 고무(高樓) 광한루(廣寒樓) 구룡(丘陵) 거래(去來)  
 왕래(往來) 지뢰(地雷) 낙뢰(落雷)

또, 한자의 대표음은 본음으로 한다.

**[보기]** 다락루(樓)

(붙임 1) <sup>(2)</sup> 독립된 명사로도 쓰이는 '난'이 접미사처럼 쓰이는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보기]** 가정란(家庭欄) 기입란(記入欄) 문예란(文藝欄) 비고란(備考欄)  
 의견란(意見欄)

제6절 겹쳐 나는 소리

제12항 <sup>(4)</sup> 한 낱말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같은 첫소리가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

(1) '붙임 3' 신설  
 (2) '다만' 신설  
 (3) '붙임' 신설  
 (4) 제12항 신설

는다.

**[보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ㄱ	ㄴ
딱딱	딱닥	슉슉하다	슉술하다
씩씩	씩색	짹짹하다	짹갈하다
씩씩	씩식	찹찹하다	찹갈하다
씩씩하다	씩삭하다	툑툑하다	툑삭하다
쌉쌉하다	쌉살하다	쑉쑉하다	쑉삭하다

### 제4장 형태에 관한것

#### 제1절 체언과 조사

제13항 체언과 조사는 구별하여 적는다.

<b>[보기]</b> (1) 떡이	떡을	떡에
손이	손을	손에
팔이	팔을	팔에
밤이	밤을	밤에
집이	집을	집에
옷이	옷을	옷에
콩이	콩을	콩에
낮이	낮을	낮에
꽃이	꽃을	꽃에
발이	발을	발에
앞이	앞을	앞에
밖이	밖을	밖에
뉘이	뉘을	뉘에
흙이	흙을	흙에
삼이	삼을	삼에
여덟이	여덟을	여덟에
꽃이	꽃을	꽃에
값이	값을	값에

#### 제2절 어간과 어미

제14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1) '말이, 만에, 만을'은 표준말 '마지'로 재사정하였으므로 빠짐.  
'부엌이, 부엌에, 부엌을'은 표준말 결정에 따라 빠짐.

<b>[보기]</b> (1)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신다	신고	신어	신으니
밀다	밀고	밀어	밀으니
울다	울고	울어	(우니)
넘다	넘고	넘어	넘으니
입다	입고	입어	입으니
웃다	웃고	웃어	웃으니
찾다	찾고	찾아	찾으니
좃다	좃고	좃아	좃으니
같다	같고	같아	같으니
높다	높고	높아	높으니
좋다	좋고	좋아	좋으니
깎다	깎고	깎아	깎으니
앉다	앉고	앉아	앉으니
많다	많고	많아	많으니
높다	높고	높어	높으니
깊다	깊고	깊어	깊으니
넓다	넓고	넓어	넓으니
홀다	홀고	홀어	홀으니
웁다	웁고	웁아	웁으니
있다	있고	있어	있으니
없다	없고	없어	없으니

(붙임 1) 두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개의 용언이 될적에, 앞 용언의 본뜻이 분명한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뜻에서 떨어진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앞 용언의 본뜻이 분명한것

**[보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ㄱ	ㄴ
돌아가다	도라가다	들어가다	드리가다
벌어지다	버러지다	벌어먹다	비러먹다
엎어지다	어퍼지다	일어나다	이러나다
훈어지다	호터지다		

(2) 앞의 용언이 본뜻에서 떨어진것

**[보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1) '을다, 을고, 을어, 을으니'는 표준어 '을프다'로 사정하였으므로 빠짐.

(2) 현행 표기 :

넘어지다	늘어놓다	늘어프리다	늘어서다
늘어앉다	늘어지다	달아대다	달아세우다
떨어뜨리다	떨어지다	떨어치다	떨어져가다
되질어보내다	되질어오다	엇들어지다	집어들다

ㄱ	ㄴ	ㄱ	ㄴ
너머지다	넘어지다	떠러뜨리다	떨어뜨리다
느러놓다	늘어놓다	떠러지다	떨어지다
느러뜨리다	늘어뜨리다	떠러치다	떨어치다
느러서다	늘어서다	되지피가다	되지어가다
느러앉다	늘어앉다	되지피보내다	되지어보내다
느러지다	늘어지다	되지피오다	되지어오다
다까대다	닭아대다	멧드러지다	멧들어지다
다까세우다	닭아세우다	저버들다	접어들다

(붙임 2)<sup>(1)</sup> 어미 '오'는 '요'로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적고, 높임의 뜻으로 덧붙이는 조사는 '요'로 적는다.

(1) 어미 '오'

[보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이것은 책이오.	이것은 책이요.
이것은 책이오, 저것은 붓이오.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이리로 오시오.	이리로 오시요.
책을 읽으시오.	책을 읽으시요.
이것은 책이 아니오.	이것은 책이 아니요.

(2) 높임의 뜻으로 덧붙이는 조사

[보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좋지) 좋지요	좋지요
(참으리) 참으리요	참으리요
(좋아) 좋아요	
(그런데) 그런데요	

### 제3절 어간과 어미 사이에 들어가는것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 사이에 들어가서 원말에 뜻을 더하는것들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1. '기, 리, 이, 히, 구, 우, 추'가 들어가는것

[보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ㄱ	ㄴ
말기다	마끼다	움기다	움기다

(1) 현행 통일안: 부록 6 '이요'는 이음끝(접속형)이나 마침끝(중지형)이나 다 '이요'로 하고, '지요'는 '지요'로 한다.

- ① 이것은 붓이요, 저것은 먹이요, 또 저것은 소요.
- ② 갈 사람은 가지요.

웃기다	우끼다	달히다	다치다
꽃기다	조끼다	먹히다	머키다
갈리다	갈니다	잡히다	자피다
틀리다	틀리다	앉히다	안치다
남이다	나끼다	엮히다	엮키다
높이다	노피다	돌구다	도꾸다
먹이다	머기다	숫구다	소꾸다
쌓이다	싸히다	돌우다	도두다
할이다	할치다	갓추다	가추다
굳히다	구치다	곧추다	고추다
급히다	구피다	맞추다	마추다
넉히다	넉피다		

다만<sup>(1)</sup>, '으키', '이키'가 들어가서 된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보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이르키다	일으키다
도리키다	돌이키다

(붙임 1)<sup>(2)</sup> 이 경우에 돌이 합하여 한 음절로 바뀐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보기] (ㄱ을 취하고 ㄴ과 ㄷ을 버린다.)

ㄱ	ㄴ	ㄷ
깨다	까이다	깨이다(까게 하다)
내다	나이다	내이다(나게 하다)
패다	파이다	패이다(파게 하다, 팔을 당하다)

(붙임 2) (1) '이, 히, 우'가 들어가서 된 말로 변한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보기] 도리다(쌀로 —)	드리다(용돈을 —)	
부치다(편지를 —)	고치다	바치다(새금을 —)
거두다	미루다	이루다

(2) '사오, 사움, 자오, 자움'이 들어간것

[보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ㄱ	ㄴ
없사오니	없아오니	있사움고	있아움고
있사오니	있아오니	듣자오니	듣짜오니
없사움고	없아움고	듣자움고	듣짜움고

(1) '다만' 신설

현행 표기:

일으키다

돌이키다

(2) '붙임 1', '붙임 2' 신설

3. '치, 트리'가 들어간것

[보기] (기를 취하고 노를 버린다.)

ㄱ	ㄴ	ㄱ	ㄴ
놓치다	노치다	엮치다	업치다
덜치다	덜치다	쏟트리다	쏟트리다
받치다(밑을 —)	바치다	흘트리다	훑트리다
뺨치다	뺨치다		

제4절 불규칙용언

제16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때,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는것은 벗어난대로 적는다.

1. 어간의 끝소리 'ㄹ'이 'ㄴ, ㅂ, ㅅ, ㅇ' 또는 관형사형의 'ㄹ' 앞에서 줄어질적

[보기] 놀다: 노니 놀니다 노세 노시다 노오 놀(때)  
 길다: 기니 길니다 — 기시다 기오 길(때)

(붙임) 'ㄹ'이 'ㄹ, ㅅ' 앞에서 줄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말에서는 준대로 적는다.

[보기] (그러지) 마라 마지못하다 마지않다 하자마자

2. 어간의 끝소리 'ㅅ'이 홀소리 앞에서 줄어질적

[보기] 낫다: 그어 그으니 그었다  
 낫다: 나아 나오니 나왔다

3. 어간의 끝소리 'ㅎ'이 'ㄴ, ㄹ, ㅁ, ㅂ'의 앞에서 줄거나 어미 '아(어)'의 앞에서 줄 때에, 어간의 끝홀소리(ㅏ, ㅑ, ㅓ)와 어미가 한 음절로 다시 줄어서 '애, 예'로 바뀔적

[보기] 까맣다: 까마니 까말 까마면 까맣니다 까애  
 하얗다: 하야니 하얗 하야면 하얗니다 하애  
 퍼렇다: 퍼러니 퍼릴 퍼러면 퍼럽니다 퍼래

4. 어간의 끝소리 'ㄷ, ㅌ'가 '어(아)'의 앞에서 줄어질적

[보기] 푸 다: 퍼 컸다  
 복도투다<sup>(1)</sup>: 복도다 복도뒸다  
 뜨 다: 떠 뒸다  
 건느 다<sup>(2)</sup>: 건너 건넸다  
 고프 다: 고폶 고폶다

5. 어간의 끝소리 'ㄷ'이 홀소리 앞에서 'ㄹ'로 바뀔적

[보기] 들다: 들어 들으니 들었다  
 물다: 물어 물으니 물었다

6. 어간의 끝소리 'ㅂ'이 홀소리 앞에서 'ㄷ, ㅌ'로 바뀔적

(1) 현행 표기: 복돋우다: 복돋우어, 복돋우었다  
 (2) 현행 표준어: 건너다

[보기] 돕다: 도와 도우니 도왔다

덜다: 더워 더우니 더웠다

7. 어간의 끝음절 '하'의 아래에서 '아'가 '어'로 바뀔적

[보기] 하다: 하여 하었다

8. 어간의 끝음절 '르'의 아래에서 '어'가 '러'로 바뀔적

[보기] 이르다(목적지에 —): 이르러 이르렀다  
 푸르다 : 푸르러 푸르렀다

9. 어간의 끝음절 '르'의 'ㄹ'가 줄고, 그 아래에 오는 '아(어)'가 '라(러)'로 바뀔적

[보기] 오르다: 올라 올랐다  
 흐르다: 흘러 흘렀다

제5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제17항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것

[보기] 길이 길이 놀이 다듬이 땀받이  
 맛이 먹이 미담이 벌이 벼훑이  
 살림살이

2.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것

[보기] 걸음 류음 믿음 얼음 엮음  
 울음 웃음 잊음 줄음 죽음  
 갓음

3.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것

[보기] 같이 굳이 길이 길이 놀이  
 많이 실없이 좋이 짓곳이

4.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것

[보기] 밝히 익히 작히

(붙임 1) <sup>(1)</sup>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것이라도, 본디말의 뜻과 떨어진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보기] 거름(비료) 고름(膿) 굵도리 노름(도박)  
 다리(땃드리는 탄 머리) 목거리(목병) 무너리 쇠부치<sup>(2)</sup>  
 일가부치<sup>(3)</sup> 코끼리

(붙임 2)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홀소리로 시작된 음절이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명사로 바뀐것

(1) '붙임 1', '붙임 2' 신설  
 (2) 현행 표기: 쇠붙이  
 (3) 현행 표기: 일가붙이

<b>[보기]</b> 귀머거리	까마귀	뜨더귀	마감	마개
마중	무덤	불경이	비명맹이	쓰레
울가미	주검	코뚜레		

(2) 부사로 바뀐것

<b>[보기]</b> 거뭇거뭇	너무	도로	뜨덥뜨덥	바투
불긋불긋	비로소	오긋오긋	자주	차마

(3)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것

<b>[보기]</b> 나마	부터	조차
----------------	----	----

제18항 명사 아래에 '이'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뀌거나 뜻만이 바뀐것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다른 품사로 바뀐것

<b>[보기]</b> 곳곳이	그곳그곳이	날날이	뭉뭉이	살살이
집집이	알알이			

2. 뜻만이 바뀐것

<b>[보기]</b> 품배팔이	네눈이	삼발이	애꾸눈이	육손이
절뚝발이				

(붙임) 명사 아래에 '이' 이외의 홀소리로 시작된 음절이 붙어서 뜻만이 바뀌거나 다른 품사로 바뀐것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b>[보기]</b> 꼬락서니	꼬트머리	모가지	모가치	바가지
바깥	사타구니	짜라기	지붕	지푸라기
짜개	부라부라			

다만, 다음과 같은 말도 이에 준하여 적는다.

**[보기]** 며칠

제19항 '하다'가 붙어서 되는 용언의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보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ㄱ	ㄴ
건건이	건거니	오륙이	오투기
눈깜짝이	눈깜짜기	코납작이	코납자기
배불뜯이	배불뜯기	홀쭉이	홀쭉기

제20항 명사나 어간의 아래에 닿소리(자음)로 시작된 음절이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뀌거나 뜻만이 바뀐것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으며, 명사나 어간의 끝소리 'ㄱ, ㄷ, ㅂ, ㅅ, ㅈ, ㅊ, ㅋ, ㅌ, ㅍ' 아래의 닿소리가 된소리로 나더라도 제4항 2 '다만'의 규정에 따라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1. 명사 아래에 닿소리로 시작된 음절이 붙어서

(1) 다른 품사로 바뀐것

<b>[보기]</b> 값지다	꽃답다	빛나다	흔지다
-----------------	-----	-----	-----

(2) 뜻만이 바뀐것

<b>[보기]</b> 끝장	늦것장이	부엌메기	얼맹이
일사귀			

2. 어간 아래에 닿소리로 시작된 음절이 붙어서

(1) 다른 품사로 바뀐것

<b>[보기]</b> 낚시	늦정이	덜개	뜯개질
----------------	-----	----	-----

(2) 뜻만이 바뀐것

<b>[보기]</b> 굶다랗다[국-]	굶직하다[국-]	길속하다	넓다랗다[널파-] <sup>(1)</sup>
널찍하다[널찍-] <sup>(2)</sup>	높다랗다	늘직하다	늑수그레하다[늑-]
민브다 <sup>(3)</sup>	얇다랗다[얇파-] <sup>(4)</sup>	얇직하다[얇찍-] <sup>(5)</sup>	얇팍하다 <sup>(6)</sup>
얼드리다	얼지르다	얇다랗다[얇파-] <sup>(7)</sup>	

다만, 'ㄴ, ㄹ, ㅁ, ㅇ' 받침으로 끝난 말 아래에서 된소리가 나더라도 제4항 2의 규정에 따라 된소리로 적는다.

<b>[보기]</b> 눈썹	말씀	숨씨	잠꼬대	공짜
골짜기	날씨			

(붙임) 다음과 같은 말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시늉말

<b>[보기]</b> 각작각작하다 <sup>(8)</sup>	극적극적하다 <sup>(9)</sup>	따작따작하다	뿔뿔하다
뜨쩍뜨쩍하다	악축악축하다 <sup>(10)</sup>	억축억축하다 <sup>(11)</sup>	할짝할짝하다

(2) 짝을 이루는 말의 한쪽 원형을 밝힐수 없는것

<b>[보기]</b> 골막하다	골먹하다	납작하다	넙적하다
말끔하다	말끔하다	말쑥하다	덜쑥하다
말짱하다	덜짱하다	셀쑥하다	실쑥하다

(3) 단 말로 변환것

<b>[보기]</b> 넙치	넙적다리	만나다	서부드다 <sup>(12)</sup>
실컷	실끔하다	점잖다	골탕
울무			

제21항 같은 어근이 거듭되어 이루어지는 시늉말의 한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보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시늉말	ㄱ	ㄴ
깜짝깜짝	깜짝이다	깜짜기다
번득번득	번득이다	번드기다
번쩍번쩍	번쩍이다	번찌기다

원형 표기 :

- (1) 널파랗다 (2) 널찍하다('널다'의 표준 발음을 [널파]로 잡은 결과임.) (3) 미쁘다 (4) 얇파랗다  
 (5) 얇찍하다 (6) 알팍하다 (7) 팔파랗다 (8) 감작감작하다 (9) 굶적굶적하다 (10) 얇축얇축하다  
 (11) 얇축얇축하다 (12) 선부드다

움직움직	움직이다	움지기다
허덕허덕	허덕이다	허더기다
꾸불꾸불	꾸불이다	꾸부리다 <sup>(1)</sup>
망설망설	망설이다	망서리다
지절지절	지절이다	지꺼리다

(붙임) 시형말의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홀소리로 시작되는 음절이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b>보기</b> 개구리	귀뚜라미	기러기	작두기	팽과리
꿀꾸리	날나리	누더기	더퍼리	동그라미
두드러기	딱따구리 <sup>(2)</sup>	딱따기 <sup>(3)</sup>	매미	무더기
미꾸라지	부스러기	뼈꾸기	살사리	삼사미
백새기	얼루기	잠짜미	칼싸두기	푸서기

간드랑간드랑

제22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b>보기</b>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죽히
끔끔히	구준히	끔찍히	답답히	비죽히
상당히	슬슬히	가בות이	가웃이	깨끗이
나בות이	느긋이	따뜻이	반뜻이(반듯하게)	방긋이
버젓이	산뜻이	어렴풋이	의젓이	지긋이

다만, '특히'는 여기에 준하여 적는다.

(붙임) '하다'가 붙지 않는 어근에서 된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보기** 갑자기 반드시(꼭) 슬며시

2. 부사에 '이'가 붙어서 또 다른 부사가 되는 경우

<b>보기</b> 더욱이 <sup>(4)</sup>	일찍이 <sup>(5)</sup>	해죽이	생긋이	생긋이
싱긋이				

제23항 '하다'나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하다'나 '없다'를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것

<b>보기</b> 급하다	딱하다	속하다	착하다	렷햷하다
족하다				

2.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것

<b>보기</b> 부질없다	상없다	시름없다	열없다	덕없다
하염없다				

원형 표기 :

- (1) 꾸부리다 (2) 딱따구리 (3) 딱따기 (4) 더욱이 (5) 일찍이

### 제6절 복합어 및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

제24항 물 이상의 말이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을적에는, 소리가 변하거나 변하지 아니하거나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닿소리와 닿소리 사이

<b>보기</b> 국그릇	쥬꿍이	꽃철	맛걸	밤낮
밥범이	웃소매	값싸다	걸잡다	낮보다
낮잡다	돋보다	잇달다	국말이	밀천
밭물	젓몸살	칼날	홀몸	흙내
집나다	걸놓다	굴주리다	맛먹다	반내다
번놓다	빛나다	엿누르다		

(붙임) 다음과 같은 말도 이에 준하여 적는다.

**보기** 실증[실증] 골병

2. 닿소리와 홀소리 사이

<b>보기</b> 눈웃음	물오리	밥알	살얼음	속웃
손아귀	손위	집안	참외	친어머니
큰언니	홀아비	물오르다	속없다	철없다
값어치	꽃잎	물아래	부역일	숫음식
웃어른	웃웃	젖어미	첫아들	팔알
홀웃	값없다	넋없다	웃오르다	

(붙임)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아주 단 소리로 변한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보기** 오라비 달걀 할아버지

제25항 '르' 받침이 있는 말과 단 말이 어울릴적에 '르'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것은 아니나 는대로 적는다.

<b>보기</b> 다담이	따님	마되	마소	무자위
바느질	부나비	부삽	부손	소나무
싸견	여달이	차돌	차조	화살

제26항<sup>(1)</sup> 복합명사나 또는 그에 준할만한 말에서, 두 말 사이에 된소리가 나거나 또는 'ㄴ'이나 'ㄹ' 소리가 나는것은, 윗말의 끝소리가 닿소리인 경우에는 된소리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홀소리인 경우에는 'ㅅ'을 받치어 적음을 원칙으로 하되, 받치어 적지 않음도 허용한다.

1. 윗말의 끝소리가 닿소리인 경우

<b>보기</b> 굴대	굴자	길가	길짐승	날자
--------------	----	----	-----	----

(1) 현행 맞춤법 :

제30항 경이름씨(복합명사)나 또는 경이름씨에 준할 만한 말에서, 두 말 사이에 된소리가 나거나, 또는 다시 입천장소리된 ㄴ이나 ㄹ 소리가 나는 것은, 윗말의 끝소리가 홀소리인 경우는 ㅅ을 받치어 적고, 닿소리인 경우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들보	들것	등불	발새	손등
움집	쥘손	감법	권수	상과
한자	관절염	맹장염	집일	물약
쌀엿				

다만, 다음 말들은 소리대로 적는다.

[보기] 송곳니      알니      어금니

2. 뒷말의 끝소리가 홀소리인 경우

[보기]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한다.)

ㄱ	ㄴ	ㄱ	ㄴ
넷가	내가	총무과	총무과
잇몸	이몸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춥불	초불	영동권	영동권
콧날	코날	대기권	대기권
콧등	코등	관세법	관세법
춧달	후달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동짓달	동지달	순수성	순수성
마룻바닥	마루바닥	사기죄	사기죄
부싷깃	부시깃	과실상해죄	과실상해죄
세뱃돈	세배돈	권택증	권택증
세숫간	세수간	위산과당증	위산과당증
아랫배	아래배	피부병	피부병
어깨깃	어깨깃	광고세	광고세
이맛살	이마살	소개장	소개장
전보줄	전보줄	대일	대일
혼자말	혼자말	뒤틀	뒤틀
갓법	가법	웃잇	요잇
넋과	내과	챗열	채열
숫자	수자	나뭇잎	나무잎
잇과	이과	배개잇	배개잇
훑수	호수	아랫입술	아래입술
국엇과	국어과	허드렛일	허드레일

제27항 아래와 같은 말에서 'ㄴ' 소리나 'ㅎ' 소리가 나는것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ㄴ' 소리가 나는것

뱃살(배ㅅ살)	찰살(차ㅅ살)	입살(이ㅅ살)
뺨살(피ㅅ살)	쭈살(조ㅅ살)	헛살(해ㅅ살)

2. 'ㅎ' 소리가 나는것

머리카락(머리ㅎ가락)	이팝(이ㅎ밥)	살코기(살ㅎ고기)
-------------	---------	-----------

안팎(안ㅎ밖)      조팍(조ㅎ밖)  
**(붙임)** '암, 수'와 어울리는 말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아래 음절이 거센소리로 나는것은 거센소리로 적는다.

[보기] 수캐(수ㅎ개)	암캐(암ㅎ개)
수컷(수ㅎ것)	암컷(암ㅎ것)
수물찌귀(수ㅎ물찌귀)	암물찌귀(암ㅎ물찌귀)
수탉(수ㅎ탉)	암탉(암ㅎ탉)

(2) 아래 음절이 예사소리로 나거나, 본디 된소리거나 거센소리인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보기] 수술	암술	수나사	암나사
수까치	암까치	수꽃	암꽃
수쟁	암쟁	수꼬끼리	암꼬끼리
수토끼	암토끼	수사돈	수여우

다만, 다음 말의 '수'에만 'ㅅ'을 받치어 적는다.

[보기] 숫슴

제28항 집두사와 어근이 어울리어 한 낱말을 이룰적에는, 소리가 바뀌어도 그 원형을 각각 밝히어 적는다.

[보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ㄴ
셋노랄다	센노랄다
섯누렁다	신누렁다
젷이기다	진니기다
엇나가다	언나가다

제7절 준 말

제29항 말의 끝음소리가 줄어들고 닿소리만 남은것은 그 위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보기]	본 말	준 말
	까마귀까치	까막까치
	기러기야	기럭야
	어제그저께	엇그저께
	어제저녁	엇지녁
	온가지	온갓
	가지고, 가지지	갓고, 갓지
	디디고, 디디지	덜고, 덜지
	복도두고, 복도두지	복돌고, 복돌지

제30항 조사만이나 또는 조사와 체언이 함께 줄어진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보기]	본 말	준 말
	나는	난

나를	날
너는	넌
너를	널
그것이	그게
그것으로	그걸로
무엇이	무에
무엇을	무얼

제31항 홀소리 ‘ㄱ, ㅋ’로 끝난 줄기에 ‘아(았), 어(었)’가 어울리어 줄어질 때에는 준대로 적는다.

보기	본 말	준 말
가아	가았다	가 갔다
나아	나았다	나 났다
사아	사았다	사 샀다
자아	자았다	자 잤다
차아	차았다	차 탔다
타아	타았다	타 탔다
서어	서었다	서 섰다
켜어	켜었다	켜 켜다
피어	피었다	피 폼다

(붙임 1) ‘ㄱ, ㅋ’ 밑에 ‘어, 었’이 어울리어 줄어질 적도 이에 준한다.

보기	본 말	준 말
개어	개었다	개 겐다
깨어	깨었다	깨 켜다
내어	내었다	내 났다
매어	매었다	매 땀다
배어	배었다	배 뵈다
새어	새었다	새 섰다
재어	재었다	재 켜다
채어	채었다	채 켜다
캐어	캐었다	캐 켜다
매어	매었다	매 땀다
베어	베었다	베 뵈다
세어	세었다	세 섰다
헤어	헤었다	헤 폼다

(붙임 2) ‘하어’가 한 음절로 줄어서 ‘해’로 될 때도 이에 준한다.

보기	본 말	준 말
하어	하었다	해 했다

흔하여            흔하였다            흔해            흔했다  
 더하여            더하였다            더해            더했다

제32항 홀소리 ‘ㄱ, ㄷ’로 끝난 어간 밑에 ‘아(았), 어(었)’가 어울리어 겹홀소리 ‘나, ㄱ’로 될 때에는 준대로 적는다.

보기	본 말	준 말	
꼬아	꼬았다	꽂	꿨다
보아	보았다	봐	봤다
쏘아	쏘았다	쑈	쑤다
두어	두었다	뒤	뒤다
쑤어	쑤었다	쑤	쑤다
주어	주었다	쑤	쑤다

(붙임 1) ‘놓아’가 한 음절로 될 때에 ‘ㅎ’이 떨어져 ‘놉’로 줄 때도 이에 준하여 적는다.

(붙임 2) ‘ㄱ’ 밑에 ‘어(었)’가 어울리어 겹홀소리 ‘내’로 될 적에도 이에 준한다.

보기	본 말	준 말	
괴어	괴었다	괘	꿨다
괴어	괴었다	괘	꿨다
뇌어	뇌었다	뇌	뵈다
되어	되었다	뵈	뵈다
뵈어	뵈었다	뵈	뵈다
쇠어	쇠었다	쇄	쑤다
쇠어	쇠었다	쇄	쑤다
외어	외었다	외	뵈다
죄어	죄었다	죄	쑤다
죄어	죄었다	죄	쑤다

제33항 ‘ㅣ’ 다음에 ‘어’가 와서 겹홀소리 ‘ㅋ’로 될 때에는 준대로 적는다.

보기	본 말	준 말	
끼어	끼었다	껴	꼰다
다니어	다니었다	다너	다뵈다
견디어	견디었다	견더	견뵈다
그리어	그리었다	그려	그뵈다
여미어	여미었다	여머	여뵈다
비비어	비비었다	비벼	비뵈다
모시어	모시었다	모셔	모뵈다
걸리어	걸리었다	걸려	걸뵈다
웃기어	웃기었다	웃겨	웃뵈다
모이어	모이었다	모여	모뵈다
가지어	가지었다	가져	가뵈다

치어	치었다	쳐	쳤다
가리키어	가리키었다	가리켜	가리켰다
버티어	버티었다	버티	버텼다
살피어	살피었다	살피	살폈다
잡히어	잡히었다	잡혀	잡혔다
눅이어	눅이었다	눅어	눅었다
끓기어	끓기었다	끓겨	끓졌다

제34항 'ㄱ, ㄴ, ㄷ, 一'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히, 니, 기, 니'로 될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b>보기</b>	본 말	준말
	싸이다	싸다
	짜이다	짜다
	포이다	포다
	보이다	보다
	쏘이다	쏘다
	꾸이다	꾸다
	누이다	누다
	뜨이다	뜨다
	쏘이다	췌다
	트이다	뜨다

제35항 'ㄱ, ㅋ, ㄴ, ㄷ, 一' 다음에 '이어'가 어울리어 들이질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b>보기</b>	본 말	준말	준말	준말
	싸이어	싸여	싸어	싸
	짜이어	짜여	짜어	짜
	피이어	피여	피어	피
	포이어	포여	포어	포
	모이어	모여	모어	모
	보이어	보여	보어	보
	쏘이어	쏘여	쏘어	췌
	꾸이어		꾸어	
	누이어		누어	
	뜨이어	뜨여	뜨어	
	쏘이어	쏘여	췌어	
	트이어	뜨여	뜨어	

(붙임) '쌍이어', '쌍여'가 'ㅎ'이 떨어져서 '싸어', '짜어'로 준 때도 준대로 적는다.

제36항<sup>(1)</sup> 어미 '지' 다음에 '않'이 어울리어 '잖'이 될적과 '하지' 다음에 '않'이 어울리어 '할'

(1) 제36항 신설

이 될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b>보기</b>	본 말	준 말 <sup>(1)</sup>
	적지 않은	적잖은
	그렇지 않은	그렇잖은
	변변하지 않다	변변찮다

제37항<sup>(2)</sup> 어간의 끝음절 '하'의 '아'가 줄고 'ㅎ'이 아래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리어 거센소리로 될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b>보기</b>	본 말	준 말
	가하다	가타
	거북하다	거북타
	간편하다	간편타
	간결하다	간결타
	끔끔하다	끔끔타
	갑갑하다	갑갑타
	깨끗하다	깨끗타
	정결하다	정결타

다만<sup>(3)</sup>, 'ㅎ'이 위의 음절의 받침이 되어 완전히 활용되는 어간으로 굳어진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b>보기</b>	않 다 :	않고	않지	않은	않으니
	이렇다 :	이렇고	이렇지	이런	이러니(ㅎ불규칙)
	그렇다 :	그렇고	그렇지	그런	그러니(ㅎ불규칙)
	저렇다 :	저렇고	저렇지	저런	저러니(ㅎ불규칙)
	어떻다 :	어떻고	어떻지	어떤	어떠니(ㅎ불규칙)
	아무렇다 :	아무렇고	아무렇지	아무런	아무러니(ㅎ불규칙)

(붙임 1)<sup>(4)</sup>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어들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b>보기</b>	본 말	준 말
	생각하다 못하여	생각다 못하여
	넉넉하지 않다	넉넉지 않다
	섭섭하지 않다	섭섭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지 않다
	못하지 않다	못지 않다

(1) 현행 표기 :

적잖은  
그렇잖은  
변변찮은

(2) 현행 맞춤법 :

제 36항 줄기의 끝소리마디 '하'의 '아'가 줄고 'ㅎ'소리만 남을 적에는 'ㅎ'을 그 자리에 둘을 원칙으로 하고, 또 위의 소리마디에 받침으로 씬도 허용한다.

(3) '다만' 신설

(4) '붙임 1' 신설

(붙임 2) 다음과 같은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b>[보기]</b> 결단코	결코	기필코	그토록	무심코
아무튼	요컨대	원컨대	정녕코	청컨대
필연코	하마터면	한사코	하여튼	

### 제5장 띄어쓰기

#### 제1절 조사

제38항 조사는 그 뒷말에 붙여 쓴다.

<b>[보기]</b> 꽃이	꽃을	꽃에
꽃보다	꽃밖에	
꽃으로부터	꽃에서만	

(붙임) '이다'는 그 뒷말에 붙여 쓴다.

<b>[보기]</b> 이것이 꽃이다.
이것이 꽃입니다.

#### 제2절 불완전명사 및 명수사

제39항<sup>(1)</sup> 불완전명사는 그 뒷말에 붙여 쓴다.

<b>[보기]</b> 보이는것이 책이다.
생각하는바가 옳다.
가는데가 어딴니까?
할수 있다.
그럴리가 있나?
며난지가 오래다.
그런 뜻인줄 몰랐다.
할 일을 다할뿐이다.
고용살이를 할따름이다.
웃을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자못 미안한듯이 말했다.
그에게 말진채 상판 안 했다.
일이 소망한대로 되었다.
그를 믿었기때문이다.
모두 잊어버릴터이다.
시골티가 난다.

(1) 제39항 신설

그무렵이 바로 3·1운동 때다.

어떤분이 오십니까?  
 그 애는 내 조카딸이 된다.  
 제딴에는 열심이다.  
 제깁에는 하노라고 한다.  
 사람도 사람나름이다.  
 아무짝에도 못 쓴다.  
 닷새만이다.  
 그중의 하나  
 그외에 무엇이 있는가?  
 그자가 또 왔어.  
 찬성하는측도 있다.

(붙임) 다음과 같은 말들은 띄어 쓴다.

<b>[보기]</b> 청군 대 백군
국장 겸 과장
이사장 및 이사들
열 내지 스물
책상, 걸상 등이 있다.
부산, 마산 등지
사과, 배, 귤 등등
사과, 배 등속

제40항<sup>(1)</sup> 홀로 쓰이지 못하는 명수사는 그 뒷 말에 붙여 쓴다.

<b>[보기]</b> 쌀 한가마	한개	오이 한거리	밥 한끼
한나절	돈 한냥	가마니 한뿔	차 한대
십씨 10도	금 서돈	명주 네동	오십리
소 한마리	물 한모금	대포 한문	전깃줄 한미터
새끼 한바람	짐 한바리	노끈 두발	대포 한방
옷 한벌	열살박이	석새 삼	조기 한손
시 한수	연필 한자루	백지 한장	총 한정
약 한제	저고리 한쪽	사과 반쪽	김 한채
배 한척	삼층	약 한첩	한치
신 두켤레	복어 한패	광목 한통	돈 서푼
양단 세필	오징어 한축	1970년	3월
5일	두시	삼십분	오초
1개월	1개년	십여일	일원
오십전			

(1) 제40항 신설

### 제3절 보조용언

제41항<sup>(1)</sup> ‘-아, -어, -여’ 뒤에 오는 보조용언은 그 뒷말에 붙여 쓴다.

- [보기]** 잘도 놀아난다.  
 날이 밝아온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자꾸 먹어댄다.  
 책을 읽어본다.  
 날씨가 추워진다.  
 불이 꺼져간다.  
 그렇게 말하여주었다.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다만, ‘-아, -어, -여’ 다음에 조사가 붙으면 조사 다음에 오는 보조용언은 띄어 쓴다.

- [보기]**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책을 읽어도 보고…….  
 불이 꺼져는 가지만…….

제42항<sup>(2)</sup> 관형사형, 의문형, 명사형 뒤에 오는 보조용언은 그 뒷말에 붙여 쓴다.

- [보기]** 비가 올듯하다.  
 그 일은 할만하다.  
 잘난체하다.  
 죽을뻔하였다.  
 좋은가보다.  
 사람인가싶다.  
 있음직하다.

다만,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적에는 다음에 오는 말을 띄어 쓴다.

- [보기]** 비가 올듯은 하다.  
 잘난체를 한다.  
 있음직도 하다.

### 제4절 고유명사

제43항<sup>(3)</sup> 성명은 붙여 쓰고, 성명과 성에 딸린 말들은 띄어 쓴다.

- (1) 제41항 신설  
 (2) 제42항 신설  
 (3) 현행 맞춤법:

제63항 둘 이상 낱말로 이룬 홀이름씨(고유명사)는 그 각 낱말을 띄어 쓴다.

예: 박 동혁 씨  
 최 치원 선생님 귀하  
 이하 생략

- [보기]** 박동혁 씨  
 최치원 선생님 귀하  
 김 씨  
 김 가  
 이 군

제44항<sup>(1)</sup> 성명 밖의 고유명사는 단위별로 띄어 쓴다.

- [보기]** 세종국민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한국은행 부산지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삼국사기 김유신전  
 국립천문대 항성천문연구원실

### 제5절 전문용어 및 한 낱말처럼 된 말

제45항<sup>(2)</sup> 다음과 같은 전문용어는 붙여 쓴다.

- |                    |          |
|--------------------|----------|
| <b>[보기]</b> 둥근일나팔꽃 | 연지머리딱따구리 |
| 무조건반사              | 자기온도계    |
| 관상동맥경화증            | 탄소동화작용   |
| 방사성동위원소            | 아황산나트륨   |
| 이원이차방정식            | 지구중심설    |
| 대륙성기후              | 예술적사실주의  |
| 삼중협주곡              | 교향관현악단   |
| 만국음성기호             | 목청울림소리   |
| 논리적실증주의            | 변증법적신학   |
| 민족자결주의             |          |
| 배당준비적립금            | 외국환시장    |
| 장물취득죄              | 무한책임사원   |
| 높이뛰기               | 이어달리기    |
| 중거리탄도유도탄           |          |
| 봉산탈춤               | 양주산디놀이   |
| 가미십전대보탕            | 우황청심환    |

제46항<sup>(3)</sup> 둘 이상의 말이 어울리어 한 낱말로 굳어진것이나, 서로 대립의 뜻을 가진 말이 어울리어 한 낱말처럼 쓰이는것은 붙여 쓴다.

1. 둘 이상의 말이 어울리어 한 낱말로 굳어진것

- (1) 제44항 신설  
 (2) 제45항 신설  
 (3) 제46항 신설

<b>[보기]</b> 남의집살이	뜬소문	사사건건	오십보백보
요사이	이다음	어느새	
기나긴	머나먼		
뜬이뜬대로	난데없이	두고두고	무말없이
마지못해	번개같이	손살같이	취죽은듯이
하다못해	한결같이	할수없이	
얼키고설키다			
보잘것없다	하잘것없다		
쓰디쓰다	차디차다		

2. 서로 대립적인 뜻을 가진 말이 어울리어 한 낱말처럼 쓰이는것

<b>[보기]</b> 본승만승	본체만체	먹은둥만둥	울동말동
들락날락	볼으락푸르락	얼치락뒤치락	들죽날죽
가나오나	자나깨나	이러니저러니	권커니жат커니
이렇다저렇다	왔다갔다	이러튼저러튼	이러쿵저러쿵
이리저리	가로세로		

### 제6절 수

**제47항<sup>(1)</sup>** 수를 적을 때에는 '만, 억, 조, ……' 단위로 되어 쓰고, 숫자에 한글을 달아줄 때에는 '만, 억, 조, ……'만을 쓴다.

**[보기]**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일  
12억 3456만 7891

다만, 금액을 적을 때에는 모두 붙여 쓸수 있다.

**[보기]** 오만육천칠백팔십구원정

### 부 록

**제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히'로만 나는것은 '히'로 적고, '이'로만 나는것은 '이'로 적으며, '히'와 '이'로 혼동되는것은 그 말의 어근에 '하다'가 붙는것은 '히'로 적고, 그렇지 않은것은 '이'로 적는다.

1. '히'로만 나는것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작히
죽히	착히	특히		

2. '이'로만 나는것

머욱이	일찍이	가붓이	가붓이	깨끗이
가웃이	거붓이	건성드뭇이	고붓이	구붓이

(1) 현행 맞춤법 :

제62항 수를 우리말로 적을 때에는 십진법에 의하여 되어 쓴다.  
일만 삼천 구백 오십 원

나붓이	느긋이	따뜻이	등긋이	반듯이
방긋이	뺨긋이	버젓이	빠젓이	빙긋이
뺨긋이	보듯이	쁘듯이	부듯이	뿌듯이
산듯이	생긋이	쌩긋이	수긋이	싱긋이
아렴כות이	어렴כות이	어연반듯이	우긋이	의젓이
이상아듯이	짜긋이	지긋이	찌긋이	

3. '이', '히'로 나는것

(1) '하다'가 붙는것

꼼꼼히	나른히	각별히	간소히	간편히
공명히	과감히	능히	묘연히	무단히
분명히	상당히	소홀히	심히	정결히
그득히	그속히	기특히	길속히	끔찍히
똑똑히	벌죽히	불룩히	빹빹히	삐죽히
순직히	수북히	엄격히	답답히	설설히

(2) '하다'가 붙지 아니하는것

가까이	고이	날카로이	대수로이	번거로이
사사로이	기어이	번번이(여러번 다)		일일이
일제이	헛되이			

**제2항** 한자말에서 본디소리로도 나고 익은소리로도 나는것은 각각 그 소리대로 적는다.

**[보기]** 본디소리로 나는것

승낙(承諾)  
만난(萬難)  
분노(忿怒)  
안녕(安寧)  
장닉(藏匿)  
비련(悲戀)  
토론(討論)  
연루(連累)  
오륙십(五六十)  
구릉(丘陵)  
십일(十日)  
팔일(八日)

익은소리로 나는것,

허락(許諾)  
곤란(困難)  
대로(大怒)  
회령(會寧)  
은익(隱匿)  
연연불망(戀戀不忘)  
의논(議論)  
누누(累累)  
오유월, 유월(六月)  
매능, 흥능, 강능(陵)  
시월(十月)  
초파일(初八日)

**제3항** 다음과 같은 말은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보기]**

-리만큼(하리만큼)  
-느니만큼(보느니만큼)  
-느니보다(하느니보다)

-ㄴ이만큼(할이만큼)  
-ㄴ이만큼(보ㄴ이만큼)  
-ㄴ이보다(하ㄴ이보다)

-는지 (갈는지 모른다)

부리 나케

제4항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보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르가? (1)

-르고? (2)

-르거나

-르결

-르계

-르세

-르세라

-르수룩

-르시

-르지

-르지니라

-르지라도

-르지어다

-르지언정

-르진대

-르진저

-울시다

-든지 (갈든지 모른다)

불이나케

ㄴ

-르까?

-르꼬?

-르거나

-르결

-르계

-르세

-르세라

-르수룩

-르시

-르지

-르지니라

-르지라도

-르지어다

-르지언정

-르진대

-르진저

-울시다

다만, 다음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

[보기] -브니까?

-리까?

제5항 (3) 다음과 같은 접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

[보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지계꾼

장난꾼

익살꾼

심부름꾼

장꾼

때깎

때깎

ㄴ

지곶꾼

장난꾼

익살꾼

심부름꾼

장꾼

때깎

때깎

현행 표기:

(1) -르까? (2) -르꼬?

(3) 제 5항 신설

성갈

빛갈

귀때기

관자때기

불때기

뒤꿈치

발꿈치

팔꿈치

이마때기

코때기

겸연쩍다

객적다

성갈

빛갈

귓대기

관자대기

불대기

뒷꿈치

발꿈치

팔꿈치

이맛때기

코때기

겸연쩍다

객적다

제6항 (1) 종래에 두가지로 구별하여 적던 다음 말들은 한가지로 적는다.

[보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맞추다(입을 맞추다. 양복을 맞추다.)

뻘치다(다리를 뻘치다. 멀리 뻘치다.)

즐이다(마음을 즐이다. 생선을 즐이다.)

ㄴ

마추다

뻘치다

조리다

제7항 (2) '더라, -던'과 '든지'는 아래와 같이 적는다.

1. 지난 일을 도로 생각하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는다.

[보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지난 겨울은 몹시 춥더라.

깊던 물이 알아졌다.

그렇게 좋던가?

그 사람 말 잘하던데!

얼마나 되던지 몰라?

ㄴ

지난 겨울은 몹시 춥드라.

깊든 물이 알아졌다.

그렇게 좋든가?

그 사람 말 잘하든데!

얼마나 되든지 몰라?

2.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

[보기]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린다.)

ㄱ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ㄴ

배던지 사과던지 마음대로 먹어라.

가던지 오던지 마음대로 해라.

제8항 (3) 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보기] 갈음 새 책상으로 갈음하였다.

가름 들로 가름

(1) 제6항 신설

(2) 제7항 신설

(3) 제8항 신설

견잡다 견잡을수 없는 상태  
걸잡다 걸잡아서 이를 걸릴 일

견히다 의상값이 잘 견히다.  
거치다 대전을 거쳐 왔다.

걸음 빠른 걸음  
거름 풀을 섞인 거름

그럼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그는 남을 위해 일한다. 그럼으로 사회에 봉사한다.)  
그러므로 그러니까(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산다.)

놀음 즐거운 놀음  
노름 노름판이 벌어졌다.

놀이다 고무줄을 놀이다.  
느리다 진도가 너무 느리다.  
놀리다 방을 더 놀리다.

달치다 거센 바람이 문을 달쳤다.  
달히다 문이 저절로 달혔다.  
다치다 부주의로 손을 다쳤다.

달이다 약을 달이다.  
다리다 옷을 다리다.

맞히다 여러 문제를 다 맞히다.  
마치다 벌써 일을 마치다.

목걸이 금목걸이, 은목걸이  
목거리 목거리가 덧났다.

반듯이 모자는 반듯이 쓰고  
반드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받치다 우산을 받치고 가다.  
받히다 소에게 받히다.  
바치다 아버지께 성적표를 바치다.  
밭치다 체에 밭치다.

벌이다 옷날이를 벌이다.  
버리다 휴지를 버리다.  
벌리다 입을 벌리다.

부딪치다 차와 차가 마주 부딪쳤다.  
부딪히다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혔다.

식히다 끓인 물을 식히다.  
시키다 일을 시키다.

앉히다 옷자리에 앉히다.  
안치다 밥을 안치다.

알음 전부터 알음이 있는 사이  
알 많이 힘이다.  
아름 세아름 되는 물레

얼음 얼음이 녹은 물  
어름 경제선어름에서 일어난 사건

있다가 돈은 있다가도 없다.  
이따가 이따가 오니라.

절이다 김장 배추를 절이다.  
저리다 다친 다리가 저리다.

줄이다 비용을 줄이다.  
주리다 여러 날 주리다.

하노라고 하노라고 한것이 이 꼴이다.  
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붙이다 ('붙다'라는 기본형이 쓰이는 말)  
우표를 붙이다.  
책상을 벽에 붙이다.  
삼촌집에 몸을 붙이다.  
홍정을 붙이다.  
불을 붙이다.  
감시원을 붙이다.  
조건을 붙이다.  
취미를 붙이다.  
바둑이라는 이름을 붙이다.

부치다 ('붙다'라는 기본형이 쓰이지 않는 말)  
힘이 부치는 일이다.  
부채를 부치다.

편지를 부치다.  
눈발을 부치다.  
빈대떡을 부치다.  
식목일에 부치는 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인쇄에 부치는 원고

-러 ('가다, 오다, 다니다'의 앞에서 쓰인다.)

공부하러 간다.

너 보러 왔다.

일자리 얻으러 다닌다.

-려 ('하다, 들다'의 앞에서 쓰인다.)

서울 가려 한다.

무엇이나 먹으려 든다.

로서 (지위, 신분, 자격을 나타낸다.)

사람으로서 그럴수는 없어.

학생으로서는 못할 것이다.

로써 ('을 가지고'의 뜻을 나타낸다.)

대패로써 나무를 밀었다.

담으로써 평을 대신했다.

제9항<sup>(1)</sup> 성명의 한글 표시는 이 규정을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현행의 음절 범위 안에서 예외를 허용한다.

(1) 제9항 신설

한글 맞춤법 개정 시안  
표준말 재사정 시안  
외래어 표기법 개정 시안

1979. 3.

문 교 부

## 차 례

### [한글 맞춤법 개정 시안]

I. 경위 및 개요	7
1. 개정의 필요성	7
2. 현행 표기법의 연혁 및 문제점	7
3. 개정 시안 작성 과정	8
4. 개정 시안의 특징 및 개요	9
II. 한글 맞춤법 개정 시안 (본문)	17

### [표준말 재사정 시안]

I. 경위 및 개요	51
1. 재사정의 필요성	51
2. 현행 표준말의 연혁 및 문제점	51
3. 표준말 재사정 시안 작성 과정	52
4. 표준말 재사정 시안의 개요	56
II. 새로 사정한 표준말 시안 (본문)	63

### [외래어 표기법 개정 시안]

I. 경위 및 개요	247
1. 개정의 필요성	247
2. 현행 표기법의 연혁 및 문제점	247
3. 개정 시안 작성 과정	249
4. 개정 시안의 특징과 개요	250
II. 외래어 표기법 개정 시안 (본문)	255